

25년 만에 다시 읽어보는 내 글 한 장의 벽돌을, 또 한 장의 기왓장을...



김종오 부회장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옛 스크랩북을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한 빛바랜 누린 신문지 한 장, 깨알 같은 글자라 잘 보이지도 않은 것을 돋보기 찾아들고 다시 읽어 봤다. 1983년 8월 1일자 지령 241호이고 보니,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사반세기(四半世紀 / 25년) 전의 우리 전국 농업기술자협회 기관지인 '농업기술회보'였다.

당시, 편집인이던 정장섭(鄭長燮 / 현 상임고문) 전무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간신문의 절반 크기인 타블로이드 판 16페이지의 농업기술회보를 단 한 번의 휴간이나 결간도 없이 끈질기게도 발행하고 있었다.

이날 자, 3면 원편 상단엔 '한 줄에 열 세 글자(一行 13字)'의 세로 조판된 5단 짜리 상자 기사가

나의 눈길을 머물게 했으니 '한 장의 벽돌을, 또 한 장의 기왓장을.....'이라는 내 글이 사진과 함께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일까, 일반적으로 자신이 쓴 옛 글을 읽다보면 당시의 편협한 사고 영역이나 또 그 조잡한 문장력에 낮이 뜨거워지기 마련인데 비록 내 글이었지만 다시 음미해 가며 읽다보니 술술 잘 내려가고 있었다. 아마 당시의 '농업진흥관 건립운동'을 두고, 지금 다시 쓰라고 해도 별로 이 이상 써질 것 같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당시의 글 내용을 옮겨 보면.....

칠월 초하루, 어느 사이 이 한 해도 반은 접었나 보다. 새벽 일찍 배달된 조간신문인 조선일보(朝鮮



日報)을 펼쳐본다. 밤낮 그렇고 그런 기사들이다.

교통사고를 낸 어느 야구선수는 연일 대문짝만하게 사진까지 곁들인 기사가 실려 지는데, 어느 정치인은 밥을 굶고 링겔을 꽂고 원상을 회복하여 퇴원을 했다는데도 손톱만한 사진하나 없다(참고 / 지금 다시 회상해 보니, 당시 전두환 군부에 대해 반기를 들고 23일간 단식투쟁을 벌였던 김영삼(金泳三) 야당 대표에 대해 군부가 기사를 통제할 것을 두고 한 글인 듯함).

하곡 수매가는 때 아닌 엄동설한을 맞이하여 동결되어 버렸고, 이에 화가 난 농부는 그 보리밭에다 골프장이란 팻말을 박아놓고는 돌아서는 만화가 바로 그 신문에 실려 있다.

이달 말 즈음이면 4천만명대를 돌파하게 된다는 그 많은 사람입(人口)들, 그런 줄 뻗히, 또는 뻗히 앞면서도 이농의 행렬은 날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만치 바쁘다던 모내기철, 부녀자들과 노약자들이 비지땀을 흘리며 모내기를 하는 이웃 저수지엔 배불뚝이 패거리들이 강태공인양 거드름을 피우는가 하면, 물대기에 동원된 소위 새마을 사람들의 목마름을 외면한 채 골프장의 파란 잔디밭엔 스프링쿨러가 무지개를 뿜고 있기도 한 현실이다.

그런데, 난 이 글을 쓰면서도 희망에 겨워있다. 누가 뭐라던 우리네 농민들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애국자요 생산자며 가진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핵전쟁보다도 더 엄청난 미래의 식량전쟁을 여차피 맞이하게 되어있는 생물체로서,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한 것처럼 최후에 가진 자가 웃을 것이며,

그들은 곧 식량생산의 주체인 농민들일 것이다.

지난 봄 어느 날 오후, 류달영(柳達永) 총재님을 비롯하여 이 땅의 농업을 우리 농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재건하자며, 빈자의 일등(貧者一燈/ 부자의 화려한 1백 등불보다 가난한 이의 한 자루 촛불이 더 값지다는 뜻)을 논의하던 그 자리에서 나는 진정한 의미의 ‘한 장의 벽돌을, 또 한 장의 기왓장’을 보태고자 1십 1만 1천 1백 1십 1원, 다시 표현하여 111,111 원이라는 여섯 개의 기등을 그려놓고 6월 말까지 납입하겠다고 약속 했다. 나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사무국을 지키고 있는 실무진들은 내리 3년째 월급이 묶여 있을 정도로 어렵다고 들어왔다. 맹물을 마시며 모래알을 씹으며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어려움을 가슴속 깊숙이 묻어두고, 기획할 땐 북극의 얼음 같은 이성(理性)으로, 협의할 땐 남풍의 실버들 같은 양식(良識)으로, 또 일을 추진할 땐 북미 대륙의 들소 같은 박진감으로 부딪친다. 실로 고마운 정성들이다.

내 비록 알팍한 월급봉투에서 떼어낸 조그만 정성이지만, 이들과는 따로 자리를 마련하여 닭똥집도 굶고 막걸리라도 두어 말 받아 이들의 고마운 뜻에 보답하리라.

농민의 구심체인 전국농업기술자협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모두의 풍요로운 농촌을 위하여-!(통일회원 / 월간 새농사 편집실장 / 김종오)

■ ■ 후기

이와 같은 내 글이 실린 이 회보가 발송돼 나가자, 전국의 회원 여러분들로부터 ‘농업기술진흥관

건립성금'이 많이 들어오는 축매가 되었다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춘천에서 영남농원을 경영하시던 한도룡(韓道龍/ 강원도지부장) 원로 어른께서는 전화통에다 나를 불러 놓고는 '김중오 니 임마, 뭐 코 딱지 같은 월급에서 111,111 원을 내 놔? 건방진 녀석, 내 비록 촌 영감탱이지만 명색이 영남농원 농장 주인데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그럼 난 니놈의 곱을 내겠다. 222,222 원을 내 놓겠다 이 말이야, 알아 들었어 임마?' 하시고는 바로 입금 시키셨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뒷날 정장섭 전무님으로부터 전해들은 나는, 그 어른께 고맙다는 전화와 편지를 따르 드렸음은 두말 할 것도 없고, 그 후 다시 아내(吳澤泳)의 명의로 222,222 원을 추가로 입금하여 333,333 원이 되게 했는데, 내가 굳이 111,111 원을 처음 낸 것은 '1'이라는 숫자는 시작이자 기초이고 또 기둥이라는 뜻도 있고 해서 그랬던 것이고, 한도룡 원로 어른께서 다음 숫자인 222,222 원을 내셨으니, 그럼 나도 222,222 원을 더 보태서 333,333 원이 되게 한 것인데, '3'이라는 숫자 또한 우리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선호도임을 감안했음은 굳이 여기서 더 설명할 것이 못 되리라.

회고컨데, 한도룡 선생님은 일찍이 경북 영주에서 전형적인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성장하다가, 스무 살 무렵 어느 일본인이 경영하던 춘천 근교의 과수원 일꾼으로 들어간 것이 계기가 되어 그 후 사과농사 재배기술자가 되었고 8.15 해방을 맞게 되자, 이 과수원을 인수하여 영남농원(嶺南農園)이라 하고는 50여년을 강원도 사람으로 살아 오셨던 것이다. 그러나 말이 춘천 사람이지만, 그 역센 경상북도 사투리는 산수(傘壽/ 80세)를 넘기시고도 그대로라,

말끝마다 '이자숙아야 니칸 놈이 멀 안닥꼬 까부노?, 때래 칩 뿌래라 임마야.' 란다.

특히 나와는 경우, 단 한 번도 '자네' 라거나 '임자' 라거나 혹은 '김 실장!' 이라지를 앓으셨고, 마치 자신의 막내 아들놈 다루듯이 '머가 어째? 이 갱상도 예천 촌놈이 팬집 실장이라고? 그래 실장이라 카이 그럼 니 왜성사과 에무나인(M-9)을 알기나 해 임마?' 라면서 사과재배의 기술자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기도 하셨다.

그렇게 아들 뻔 되는 우리들과도 구김살 하나 없이 멧과 맛과 풍류를 여과 없이 토해 내시던 한도룡 선생님이셨는데, 전국농업기술자대회 운동이 전개되던 1960년 부산에서의 첫 대회 때부터 단 한 번도 결번 없이 무려 43회나 참여하시던 그 어른께서 천만 뜻 밖에도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셨으니 그 비통함을 무슨 말로, 무슨 글로 또 어디에다 비기랴!

생전에 대회 때 마다 뵈게 되면, 우리들이 '이 연말 추위에 감기도 한 번 안하시고 또 오셨네요, 어디 춘천에는 기침이고 감기고 다 휴가 갔습니까?' 라고 하면, '이 정신 나간 자식들아, 농사꾼이 바빠서 미칠 지경인데 감기 앓을 시간이 어데 있노? 감기는 게으른 놈들이나 하는 거지, 안 그래 이 머슴 놈들아?' 라면서 반문하신다. 그러다가 '이거나 한 잔 해라!' 며 그 예의 산야초(山野草)로 손 수 읊어 내린 '한도룡표 약초주'를 허리춤에서 꺼내 주시던 그런 정에 겨운 분이셨다.

오늘에 사 25년 전의 내가 쓴 옛 글을 읽다보니 한도룡 선생님 생각에 잠시 눈시울이 뜨거워짐은 우리 농업기술자협회의 오랜 구성원으로서 알게 모르게 터득하게 된 농심의 발로 때문이리라. ㉞